

제 4 교시

사회탐구 영역(윤리와 사상)

성명	수험번호	3	제 [] 선택
----	------	---	----------

윤리와 사상

1. 다음 가상 대화의 '스승'이 강조한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

- ① 자연의 모든 것에 위계가 있음을 순리로 인정해야 한다.
- ② 마음을 깨끗이 비우고[心齋] 만물을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.
- ③ 오감(五感)으로 파악한 도(道)의 원리에 따라 행위해야 한다.
- ④ 문명의 이기(利器)를 이용하여 생활의 편리를 지향해야 한다.
- ⑤ 외물에 얽매이지 않고 인의(仁義)의 도덕규범을 실천해야 한다.

2. 고대 서양 사상이자 갑,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<보기>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? [3점]

갑: 영혼에는 나라 안에 있는 것들과 똑같은 부류의 것들이 있고, 그 수도 똑같다. 인간의 경우에 헤아리는 부분, 걱정적인 부분, 욕구적인 부분이 각각 자기 일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올바른 사람이 될 것이다.

을: 영혼에서 이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둘로 나눌 수 있다. 한 부분은 자체에 이성을 가지고 있고, 다른 부분은 아버지의 말을 듣듯 이성을 듣고 따를 수 있다. 덕도 이에 따라 한 부분을 지성적 덕으로, 다른 부분을 품성적 덕으로 부른다.

<보 기>

ㄱ. 갑: 영혼에서 부정의는 세 부분 간에 내분이 생긴 것이다.
 ㄴ. 을: 악덕은 영혼에서 생기는 품성 상태가 아니라 감정이다.
 ㄷ. 을: 현실에는 좋은 것들에서 분리된 좋음 자체가 존재한다.
 ㄹ. 갑, 을: 영혼의 비이성적인 부분에서도 덕을 발휘할 수 있다.

- ① ㄱ, ㄹ
- ② ㄴ, ㄷ
- ③ ㄷ, ㄹ
- ④ ㄱ, ㄴ, ㄷ
- ⑤ ㄱ, ㄴ, ㄹ

3. 사회사상가 갑,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<보기>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? [3점]

갑: 자유롭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한 개인의 활동에 개입하여 간섭하지 않는 것이다. 자유라는 개념의 본질은 개인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쳐들어오는 사람을 막는 데에 있다.

을: 자유롭다는 것은 예측되지 않는 것, 즉 다른 사람의 자의에 종속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. 한 국민이나 국가는 자신의 법 아래에서 살 수 있을 때만 자유롭다.

<보 기>

ㄱ. 갑: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 간의 구분이 사라져야 한다.
 ㄴ. 을: 법의 지배를 통해 자유와 공동선을 조화시킬 수 있다.
 ㄷ. 을: 애국심은 공적인 삶의 참여를 통해 키워지는 감정이다.
 ㄹ. 갑, 을: 국가는 타인에게 해악이 되는 행위를 제재할 수 있다.

- ① ㄱ, ㄷ
- ② ㄱ, ㄹ
- ③ ㄴ, ㄹ
- ④ ㄱ, ㄴ, ㄷ
- ⑤ ㄴ, ㄷ, ㄹ

4. 근대 서양 사상이자 갑,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?

갑: 이성(理性)은 정념(情念)의 노예이고 또 노예일 뿐이어야 한다. 이성(理性)은 정념(情念)에 봉사하고 복종하는 것 외에 어떤 직무도 탐낼 수 없다. 정념(情念)과 상반되는 원리는 이성(理性)과 같은 것일 수 없다.

을: 이성(理性)의 참다운 사명(使命)은 다른 의도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, 그 자체로 선한 의지를 낳는 것이어야 한다. 이 의지(意志)는 유일한 선일 수는 없지만, 최고선(最高善)이어야만 한다.

- ① 갑: 공감은 사회적 유용성을 가진 행위를 시인하는 근거이다.
- ② 갑: 이성(理性)은 인간이 행하는 의지적 활동의 동기가 될 수 있다.
- ③ 을: 타고난 경향성을 바탕으로 도덕적 의무를 수립해야 한다.
- ④ 을: 도덕 법칙(道德律)은 인간의 행복을 증진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.
- ⑤ 갑, 을: 동정심(同情心)에서 비롯된 행위는 도덕적 가치를 지닐 수 있다.

5. 고대 동양 사상이자 갑,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갑: 군자는 경(敬)으로 자기를 수양한[修己] 후에 백성(百姓)을 편안하게 한다. 자기를 수양해서 백성(百姓)을 편안하게 하는 것은 요순(堯舜) 임금조차도 어렵게 여겼던 일이다.

을: 군자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가 성(性)을 교화(教化)하고 인위(人爲)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. 소인(小人)을 천하게 여기는 것은 그가 성(性)을 따르고 이익(利)을 탐하며 다투기 때문이다.

- ① 갑: 통치자가 덕(德)을 갖추고 모범을 보여 백성(百姓)을 교화(教化)해야 한다.
- ② 갑: 효제(孝悌)를 실천하여 사랑(仁)을 사회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.
- ③ 을: 예의(禮儀)는 배워서 행할 수 있고 익혀서 이룰 수 있는 것이다.
- ④ 을: 소인(小人)도 인위(人爲)적 노력(努力)으로 도덕적(道德的)인 인간(人間)이 될 수 있다.
- ⑤ 갑, 을: 하늘(天)은 만물(萬物)의 근원(根源)이기 때문에 사람(人)의 일을 주재(主宰)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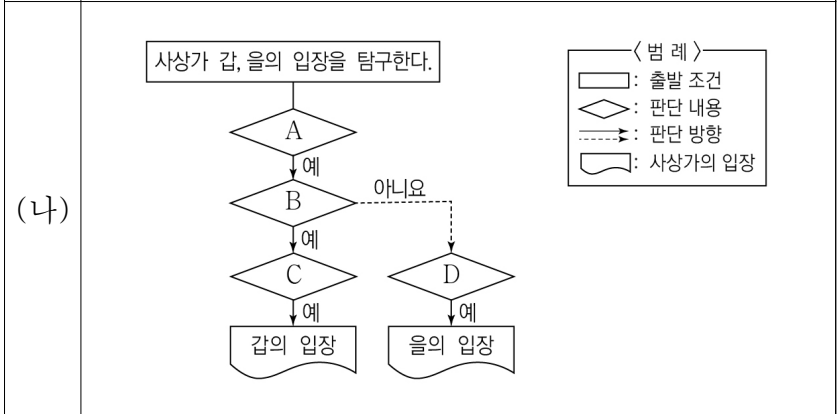
6. 근대 서양 사상가 갑, 현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갑: 어떤 종류의 쾌락이 다른 쾌락에 비해 더 바람직하고 더 가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공리의 원리와 양립할 수 있다. 그러므로 쾌락을 측정할 때 오직 양에만 의존한다면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다.
 을: 어떤 개인이나 집단은 움직이고 있는 방향에 의해서 판단된다. 지금까지 좋은 사람이었어도 현재 타락하고 있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며, 도덕적으로 무가치한 사람이었어도 현재 나아지는 쪽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.

- ① 갑: 감각적 쾌락보다 정신적 쾌락이 질적으로 높은 쾌락이다.
- ② 갑: 인류의 행복을 증진하지 않는 개인의 희생은 가치가 없다.
- ③ 을: 지식의 유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지성적 탐구가 필요하다.
- ④ 을: 인간이 도덕적 상황에서 해야 할 행위 원리는 고정되어 있다.
- ⑤ 갑, 을: 행위가 가져올 결과를 고려하여 행위의 도덕적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.

7. (가)의 중세 서양 사상가 갑, 을의 입장을 (나)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, A ~ D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만을 <보기>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? [3점]

(가) 갑: 지상의 나라에서는 자신을 자랑하며, 천상의 나라에서는 신을 자랑한다. 지상의 나라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고 천상의 나라는 신을 가장 큰 영광으로 여긴다.
 을: 신은 모든 것이 나아가야 할 목적을 정하는 최초의 존재이며, 모든 것은 신의 결과물이다. 인간은 신의 명령인 영원법에 근거를 둔 자연법을 따라야 한다.



<보기>
 ㄱ. A: 인간은 신의 은총이 주어질 때 구원받을 수 있는가?
 ㄴ. B: 종교적 덕을 실천하면 현세에서 영원한 행복이 보장되는가?
 ㄷ. C: 선의 결핍 상태인 악은 실체로서 존재할 수 있는가?
 ㄹ. D: 인간은 이성으로 인식한 자연법을 통해 영원법에 참여할 수 있는가?

- ① ㄱ, ㄴ ② ㄱ, ㄹ ③ ㄴ, ㄷ
- ④ ㄱ, ㄷ, ㄹ ⑤ ㄴ, ㄷ, ㄹ

8. 근대 한국 사상가 갑,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<보기>에서 고른 것은?

갑: 우리의 전례(典禮)를 마땅히 보전하고 우리의 문물을 회복해야 한다. 무릇 정사와 법령이 조금이라도 오랑캐 풍속에 물든 것은 일체 폐지해야 한다.
 을: 우리나라에는 두 가지 폐습이 있는데 이는 적서(嫡庶)와 반상(班常)의 구별이다. 이 세상 사람은 다 한울이 낳았으니 하늘의 백성으로 공경해야 가히 태평하다.

<보기>
 ㄱ. 갑: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서양의 문물을 배척해야 한다.
 ㄴ. 을: 후천 개혁을 통해 현세에서 이상 세계를 실현할 수 있다.
 ㄷ. 을: 세상의 모든 진리와 학문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.
 ㄹ. 갑, 을: 신분의 차별에서 벗어나 평등한 사회를 이루어야 한다.

- ① ㄱ, ㄴ ② ㄱ, ㄷ ③ ㄴ, ㄷ ④ ㄴ, ㄹ ⑤ ㄷ, ㄹ

9. 다음을 주장한 한국 유교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우리의 영체(靈體) 안에는 본래 욕구[欲]하는 일단이 있다. 만일 이 욕구가 없다면 천하의 만사를 실행할 수 없을 것이다. 이익에 밝은 사람은 욕구하는 마음이 이익이나 재물을 따라가며, 의리에 밝은 사람은 욕구하는 마음이 도의(道義)를 따라간다.

- ① 하늘이 부여한 영지의 기호가 곧 인의(仁義)의 덕인가?
- ② 도덕적 행위는 모든 욕구와 별개로 하여 이루어지는가?
- ③ 인간은 선 또는 악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나는가?
- ④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도 선을 좋아하는 본성[性]이 있는가?
- ⑤ 사단(四端)을 확충하지 못한 인간이라도 사덕을 지니고 있는가?

10. 고대 동양 사상가 갑,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<보기>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? [3점]

갑: 선비[士]는 뜻[志]을 숭상하는데, 이는 인의(仁義)를 추구하는 것이다. 죄가 없는 이를 죽이는 것은 인이 아니고 자신의 것이 아닌데 갖는 것은 의가 아니다. 인에 머물고 의를 따르면 대인(大人)으로서 할 일이 갖추어지게 된다.
 을: 성인(聖人)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. 내가 무위(無爲)하니 백성은 저절로 감화되고, 내가 고요히 있는 것을 좋아하니 백성이 저절로 바르게 된다. 내가 욕심을 내지 않으니 백성은 다듬지 않은 통나무처럼 저절로 순박하게 된다.

<보기>
 ㄱ. 갑: 의로운 일을 부단히 실천하여 호연지기를 길러야 한다.
 ㄴ. 을: 성인의 통치는 백성이 무지(無知)의 덕을 회복하게 한다.
 ㄷ. 을: 현자(賢者)를 숭상하여 사람들이 다투지 않게 해야 한다.
 ㄹ. 갑, 을: 사람은 누구나 수양을 통해 본성을 실현할 수 있다.

- ① ㄱ, ㄷ ② ㄱ, ㄹ ③ ㄴ, ㄷ
- ④ ㄱ, ㄴ, ㄹ ⑤ ㄴ, ㄷ, ㄹ

16. 한국 유교 사상가 갑,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? [3점]

갑: 태극에 동정(動靜)이 있다고 함은 태극이 스스로 동정함이다. 이(理)와 기(氣)가 합하여 사물이 되는 것도 이것이다. 사람의 몸도 이와 기가 합하여 생기므로 두 가지가 서로 발(發)하여 작용하고, 서로 소용되는 것이다.
 을: 태극이란 묘함이고, 움직이고 고요함이란 그것이 타는 기틀이라고 주자가 말하였다. 이(理)는 본래 무위(無爲)이나 기를 타고 유행하여 만 가지로 변화하며, 비록 유행하여 변화하지만 그 무위의 본체는 본래 그대로 있다.

- ① 갑: 이는 기의 작용을 통해 생성되는 도덕 원리이다.
- ② 갑: 사물의 이와 기는 천하고 사람의 이와 기는 존귀하다.
- ③ 을: 이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까닭[所以]일 뿐이다.
- ④ 을: 이는 기질의 맑고 흐림[淸濁]에 따라 선하거나 악하게 된다.
- ⑤ 갑, 을: 이와 기는 개념적으로 분리될 수 없으므로 섞이게 된다.

17. 사회사상가 갑,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? [3점]

갑: 자연 상태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 상태이다. 사람들은 이 비참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들이 지닌 모든 권력과 힘을 한 사람 혹은 하나의 합의체에 양도하게 된다.
 을: 자연 상태는 비교적 평화롭지만, 사람들은 자연권에 대한 향유가 매우 불확실하다. 그러므로 각자의 생명, 자유, 자산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 사회를 결성하게 된다.

- ① 갑: 공통의 권력이 없는 자연 상태는 부정의가 난무한 상태이다.
- ② 갑: 사회 계약은 평화를 추구하는 이타심을 바탕으로 수립된다.
- ③ 을: 새로운 입법부 수립의 정당성은 신약의 목적 실현에 있다.
- ④ 을: 국가 최고 권력은 시민의 재산을 자의적으로 다룰 수 있다.
- ⑤ 갑, 을: 국가는 공동체를 구성하려는 인간의 정치적 본성에 따른 산물이다.

18. 중국 불교 사상가 갑, 한국 불교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갑: 자성(自性)의 마음자리를 지혜로써 관조하여 안팎이 사무쳐 밝으면 자기의 본래 마음을 알고, 본래 마음을 알면 곧바로 해탈이다. 해탈을 얻으면 곧 반야(般若) 삼매(三昧)이며, 반야 삼매를 깨달으면 곧바로 무념(無念)이다.
 을: 예전부터 많은 성인(聖人)이 깨달은[頓悟] 뒤에 닦았으며 이 닦음에 의해 증득했다. 그러므로 이른바 신통 변화는 깨달음에 의해 닦아서 점차로 익혀야 나타나는 것이지, 깨달을 때 곧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.

- ① 갑: 외적 공부인 교리에 얽매이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.
- ② 갑: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불성(佛性)을 직관해야 한다.
- ③ 을: 나쁜 습관[習氣]이 있는 상태에서도 돈오(頓悟)할 수 있다.
- ④ 을: 누구나 자성을 단박에 깨달으면 더 이상의 수행은 불필요하다.
- ⑤ 갑, 을: 연기의 법칙을 자각하여 중생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.

19. (가)의 사회사상가 갑, 을, 병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(나) 그림으로 표현할 때, A ~ 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 [3점]

(가)	<p>갑: 국가는 조세 체계의 결정 등 소비 성향에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. 포괄적인 투자의 사회화는 완전 고용에 가까운 상태를 달성할 유일한 수단이다.</p> <p>을: 국가 권력은 부르주아 계급 전체의 공동 업무를 담당하는 위원회일 뿐이다.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과거부터 내려오는 소유관계와 근본적으로 결별하는 것이다.</p> <p>병: 국가는 경쟁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을 창출하는 데 힘써야 한다. 정부가 정책을 통해 시장 실패를 해결하려는 것은 치명적 자만이다.</p>
(나)	<p>〈범례〉 → : 비판의 방향 A ~ F : 비판의 내용</p> <p>〈예시〉 갑 → 을 (A) A는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임.</p>

- ① A: 구성원 전체의 이익 증진은 시장 경제에서 가능함을 간과한다.
- ② B: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생산 수단을 공유해야 함을 간과한다.
- ③ C, E: 자본주의 체제에서 인간다운 삶을 실현할 수 있음을 간과한다.
- ④ D: 노동자 계급이 예측에서 벗어나려면 혁명이 필요함을 간과한다.
- ⑤ F: 유효 수요 창출을 위해 국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함을 간과한다.

20.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○ 인간이 자연의 공통적 질서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. 인간이 자기 본성과 일치하는 개체들 사이에서 생활한다면 그의 활동 능력은 촉진되고 고무될 것이다.
 ○ 인간은 신 안에 있으며, 신 없이는 존재할 수도 생각될 수도 없는 어떤 것이다. 인간은 신의 본성을 일정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양태이다.

- ① 이성적인 삶을 위해 자기 보존 욕구를 극복해야 한다.
- ② 인간은 우연성이 없는 세계 안에서 실체로서 존재한다.
- ③ 신은 자연의 인과 질서를 초월하여 자유로운 속성을 지닌다.
- ④ 인간은 자유 의지를 발휘하여 정념의 속박에서 벗어나야 한다.
- ⑤ 최고의 행복은 신에 대한 인식에서 도달하게 되는 정신의 만족이다.

* 확인 사항
 ○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(표기)했는지 확인하시오.